

자채농요

1. 전승지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 군들마을

2. 유래 및 해설

자채농요란 이천 지방의 농부들이 자채벼를 가꾸며 부르던 일노래들이다. 자채벼는

멸종되고 말았지만, 다행히도 옛날 자채농사를 짓던 노인들이 많이 생존해 있어 그 시절에 부르던 농요들은 아직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농요마저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그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자채농요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옛날 자채벼의 재배가 왕성했던 대월면 군량리 군들마을은 국도변에서 멀리 떨어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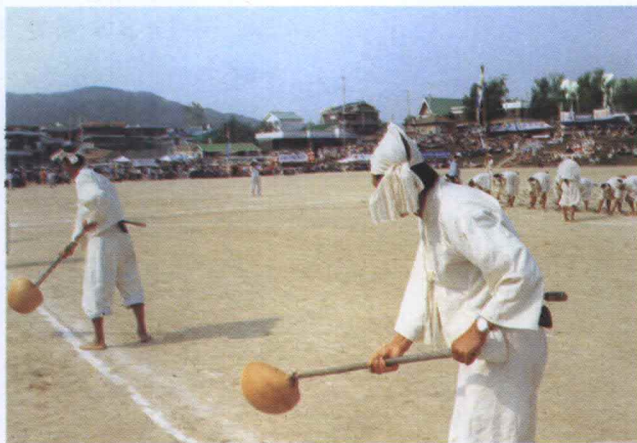
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양화천 상류의 기름진 들판을 끼고 마을의 대부분이 논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집성촌인 관계로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 노인들이 많으며 자채벼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60세 이상된 마을노인 중 대부분이 당시 부르던 농요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병익, 김병기, 김병천 삼형제가 대표적인 자채농요의 기능보유자들이다.

3, 구성 및 줄거리

자채농요는 쓰레질 소리와 김매기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벼씨를 뿌릴 때와 벼를 타작할 때는 소리가 없는데, 김매기와는 달리 벼씨를 뿌릴 때는 정신을 집중해야 하며 타작할 때는 힘이 들어서 소리를 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자채농요는 ①쓰레질 소리(소몰이 소리) ②아리랑 타령 ③꿏았네 ④지게상여 소리 ⑤하나 하나 ⑥오호이 에헤야 ⑦ 단허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쓰레질 소리는 논을 간 후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리거나 모심기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을 뜻하며, 밭갈이 또는 논갈이 때와 같이 소를 사용한다. 이때 부르는 소리를 긴아리, 자진아리, 소몰이 소리, 쓰레질 소리라고 하며, 그것도 비교적 평야지대로 볼 수 있는



군량리에서 이 소리가 불리워지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아리랑 타령은 이 지방의 특산인 자채벼의 논김(애벌)을 맬 때 부르는 소리이며 타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가락이다.

꿏았네는 두벌 또는 세벌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다. 보통 맨손으로 꿏은 잡초를 훑어나가며 노래한다.

지게상여 소리는 마을 총각들이 풀이나 나무를 하기 위하여 산에 오를 때 심심풀이로 지게 둘을 이어 상여를 꾸미고 상여 소리를 흥내낸다.

하나 하나는 늦벼 또는 일반벼를 심을 때 부르는 소리다.

오호이 에헤야 일반벼의 두벌 또는 세벌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이며 이 소리의 자진가락은 한 논매미의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부르는

‘단허리’의 역할을 한다.

단허리는 일명 ‘대허리’ 또는 ‘우기기’라고도 하며, 그 뜻은 허리를 펴서 쉬지 말고 단번에 남은 일을 끝내자는 뜻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다른 소리보다 박자가 빠르고 힘차며 ‘오호이 에헤야’의 자진가락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천 자채농요는 1986년 제 5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했고, 1989년 제 6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풍물놀이

1. 전승지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 일대

2. 유래 및 해설

이천 풍물놀이는 옛날부터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논농사가 발달하였던 이천지방에

전승되어온 두레적 성격의 풍물가락과 사라져가는 경기 가락을 바탕으로 여러 진법의 놀이를 고증을 받아 재구성한 것으로 사물과 소고, 무동, 잡색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천시는 용인과 안성에 접해 있고 남동으로 충북 음성과 접하고 있어 중부내륙에 위치해 있다. 그리하여 경기도나 충청도 지방의 풍속이 병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천 농악의 내용이나 형식은 대체적으로 평택, 안





성과 유사하나 과거에는 대단한 위세를 떨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이천농악의 전통적인 특색은 호남지방에서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점과 상쇠의 상모가 일반적인 부포 상모가 아니라 경상모로 되어 있어 세기(細技)의 재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외의 소고쟁이들의 상모 역시 흔히 연희되는 채상모가 아닌 나비 상모가 연희되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신 밟기 때 잡색으로 질라아비와 거북이, 머슴, 여종과 같은 것이 있다는 점이다.

이천농악의 가락은 옷다리 풍물가락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길군악을 비롯하여 업쑈시기, 다드라기, 광고가락, 등지삼채, 짹짹이,

인사가락,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짹짹이 가락이 특징이다.

이천농악은 1993년 제 8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했다. 이천풍물놀이팀은 1994년 제 9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했고, 1995년 제 10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노력상을 수상했다.

거북놀이

1. 전승지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대월초등학교

2. 유래 및 해설

옛부터 전래되어 오는 전설이나 민담 중에는 거북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으며 우리나라의 미술품중에도 거북이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거북이는 또 우리 생활에 여러가지 복을 가져다 주는 신령스러운 동물로서 토속신앙의 대상이 되어 숭배를 받아 왔다.

이천지방의 거북놀이 역시 그 발생근원을 지역적인 특색이 두드러진 무속신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천의 거북놀이는 놀이의 방법이나 사용되는 기물 등에서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제의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 제의성과 놀이로서의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귀중한 지방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천지방의 거북놀이는 8월 한가윗날 밤에 휘영청한 달빛 아래서 연희된다. 거북놀이가 8월 한가윗날에 연희되어온 이유는 으름가는 명절인 이 날은 부락민들이 모두 어울려 즐긴다는 뜻과 거북이를 만드는 데 드는 수숫잎도 음력 8월이 되어야 제대로 성숙하여 이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채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천지방의 거북놀이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한가윗날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즐기며, 각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민속놀이로서 서민사회가 창출해낸 민속문화였다.

3. 구성 및 내용

민속놀이의 대부분이 시골 한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다양한 인적 구성이 어렵다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거북놀이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거북놀이이기 때문에 거북이가 등장하고 거북물이인 '질라아비'의 역할이 특이하다. 놀이에 사용되는 깃발도 농기(農旗)와 영기(令旗) 이외에 우도농악에서나 볼수 있는 용기(龍旗)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농악대의 구성을 보면 화주(花主) · 나리 · 보살 · 잽이(樂士) · 산이(技術人)와 15인 정도의 탁발이 출연하는 걸립패와는 차이가 있으나, 놀이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터굿 · 조왕굿 · 샘굿은 걸립패의 집건이와 유사한 점이 많다.

거북놀이의 구성은 ①각종 깃대잡이 ②거북이와 질라아비 ③농악대 ④양반, 머슴, 여종 ⑤기타 역할로 이루어진다. 거북놀이의 내용은 ①길놀이 ②장승굿 ③우물굿 ④마을판굿 ⑤문굿 ⑥터주굿 ⑦조왕굿 ⑧대청굿 ⑨마당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거북놀이의 주역인 거북이 제작은 발굴자인 김종린씨와 거북놀이의 기능보유자인 김병천용에 의해서 재래의 형태를 크게 개량하여 기능이나 세기(細技) 면에 효과를 주도록 제작되었다. 그 모습은 실제의 거북이와 매우 흡사하며 위엄이 있고 동작이 자연스러워 거북놀이의 재현을 위해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천의 거북놀이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72년 대월초등학교 김종린 교감에 의해 발굴 재현되어 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수 활동을 전개하고, 1978년 10월19일 제 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강원도 춘천)에

참가하여 민속놀이 분야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982년 10월 16일 제 1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장려상 수상, 1983년 제 2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장려상 수상, 1984년 제 3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였고, 1987년 제 4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시연팀으로 참가하였다.